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03. 14. 목	
	담당	이교영 활동가	010-5457-9618
		조은아 활동가	010-3185-0989
	배포일시	2019. 03. 14. 목	총 매 (별첨 0건)

혐오/차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 퇴출!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출범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여성가족부 앞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 1 : 조은아 활동가 - 발언 2 : 김승환 활동가 (6세 아동 양육자) - 발언 3 : 이교영 활동가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어린이가 성인 남녀의 몸에 각각 핑크와 블루 페인트(4L)를 쏟아 부음으로써, 어른들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형상화함. 	 <p>PINKNOMORE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p>
---	--

※ <BBC 제작 가이드라인>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오전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를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키는 핑크 노 모어 캠페인의 출범을 알렸다. 아이들이 여과 없이 접하는 미디어 속 콘텐츠들은 수많은 혐오, 차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핑크 노 모어 홈페이지(pinknomore.org)를 개설하여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 제작 및 편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 프로그램 시정 요구 등 미디어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 방송 중인 TV 아동 애니메이션 112개를 분석한 결과(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주인공이 남성인 경우는 68%, 여성인 경우는 32%로 성별 차이가 두 배에 이르며, 여성 캐릭터는 분홍색을 입은 얌전하고 예쁜 모습으로, 남성 캐릭터는 파란색을 입은 씩씩하고 힘이 센 모습으로 그려지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콘텐츠가 만연해 있다.

□ 누구나 핑크 노 모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혐오/차별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월 최악의 혐오/차별 콘텐츠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BS, KBS, MBC 등 공영방송사에 BBC 제작 가이드라인과 같은 우수한 사례를 도입하도록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발언문_1> 조은아 활동가

발언문

지금 청소년들 중 어린 시절 뽀로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 국민 애니메이션에는 뽀로로의 친구들 중 루피라는 여자 아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일한 분홍색 캐릭터인 루피는 1기 52편 중 11편에 등장하는데, 그 중 10편에서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뜨개질을 합니다. 뽀로로가 쿠키를 굽는 설정이 1번인 것과 비교하면, 루피는 색상에서부터 역할까지 넓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투사된 모습입니다. 다른 남자 아이 캐릭터들은 경쟁하거나 놀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비해, 루피는 자주 울고 쉽게 빠치고 그러다가 어느새 혼자 풀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접해 온 숱한 미디어 속 고정관념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TV, 인터넷, 음악에서 더 무분별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차별과 혐오의 정서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공고하게 내재된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행동으로 표출될 때 폭력이 됩니다.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전파하는 범죄자, 그 모습을 보고도 제재하지 않는 방관자, 동조자. 수사중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찰. 명백한 인격 살인을 한 가해자에 무혐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가르쳐야 할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 이것은 특정 소수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성희롱하는 교사. 이것은 특정 소수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그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인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열광하는 채널은 그야말로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가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기대하기에는, 아이들이 접하는 다른 미디어도 별다른 없습니다.

이제 TV속 예능은, 코메디는, 드라마는 도저히 못보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미디어 속 콘텐츠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미디어 콘텐츠를 아카이빙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화한 세상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발언문_2> 이교영 활동가

저는 아직 비혼이지만, 지금 엄마들이 외치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앞으로의 제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 생각해서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가 될 것이고, 집안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해도 이미 저의 조카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 때문에 차별받고 인종, 성적취향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장애, 외모 때문에 비하의 대상이 되는 사회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핑크노모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V뿐만아니라 웹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질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새침하거나 청순하거나 귀엽거나 하는 여성상을 부각하거나, 용감하거나 리더십있거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남성상을 부추기거나 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성, 성적취향, 인종, 장애, 외모, 경제력 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강요되어 오던 역할, 지위, 행동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핑크노모어 캠페인은 웹사이트 핑크노모어.org에서 차별적 콘텐츠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데이터를 추적하는 한편, 취합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주제를 정하고 활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각 방송사의 혐오/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는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항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핑크노모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이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참여로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돌려줄 날이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 다양한 삶을! 혐오/차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는 떠나라!

성 격차지수 115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초등학생의 혐오 표현 사용이 확산되고 ‘성’ 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지금, 성 평등의식과 다양성의 가치를 심고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스스로 가치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유아와 아동에게 성장 과정에서 성 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사회적 책임은 상당하다.

유아와 아동에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스마트 폰의 확산과 사용, 노키즈존 등 어린이에게 관대하지 못한 분위기 등으로 이전보다 이른 월령에 스마트 폰을 접하고 미디어를 만나게 되는 환경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는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 상황이다. 굳건한 성별 고정관념, 차별, 혐오가 가득하다.

2018년 국내에서 방송 중인 TV 아동 애니메이션 112개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인공이 남성인 경우 68%, 여성인 경우 32%로 나타났다. 주인공을 드러나는 성별 기여도의 차이가 두 배에 이르는 것이

다.

유아동이 주요 시청자인 상당수 애니메이션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여전히 담고 있다.

여성 캐릭터는 분홍색을 입는다. 대부분 얌전하고 예쁜 모습, 때로는 신경질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지닌다.

남성 캐릭터는 파란색을 입는다. 씩씩하고 힘이 세며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간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남성이 중심이며 여성이 등장한다 해도 몸매를 부각하거나 변신 과정에서 알몸으로 드러나는 등 접근에 차이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를 더욱 반성하게 한다.

영국 등은 ‘성별 고정관념이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의 선택과 기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성 역할과 성별 고정 관념을 나타내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 간 양성평등조항 위반으로 다룬 심의안건이 총 74건에 불과하고, 이 중 단 한 건도 법정제재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 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통해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외모에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권고’한 일을 두고도 일부 정치인의 ‘검열’ 프레임과 방송 규제적 시각이라는 여론에 이를 해명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처지를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미디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차별적인 성별 접근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외모, 장애, 인종 등에 대해서는 혐오를 심거나 다양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성공한 삶이자 존경의 대상을 만든다.

가난한 것은 부끄럽고 때로는 죄인이 된다.

외모가 특이한 것은 비하의 대상이 되며 장애는 우스꽝스럽거나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성적 지향이 다르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비단 시사 프로그램이나 대담은 물론 부담 없이 접하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성차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월 14일을 시작으로 핑크노모어 캠페인을 시작한다.

각종 미디어 속 차별적 콘텐츠를 집단 지성의 힘으로 모으고 이를 토대로 한 ‘미디어 제대로 인식. 제도 개선 행동’이다.

문제의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과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작업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웹사이트 pinknomore.org에서 제보를 받고, 그 중 다수의 문제 제기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간 인식되고 강요된 성별에 따른 역할, 지위, 행동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행동해가겠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 외모, 경제력 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기질과 원하는 대로 개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핑크 노모어 캠페인이 한 걸음 나서 딛겠다.

2019년 3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언어

4.20 거친 언어 표현의 영향은 단어의 선택, 화자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다. 세계 지역이나 지역 공동체 별로 서로 다른 단어가 서로 다른 정도의 불쾌감을 야기한다. 개인의 나이, 성별, 교육, 고용상태, 신념, 국적, 거주지 이 모든 것이 그가 불쾌감을 느낄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거친 언어 표현은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어디서 방송되든지 시청자 기대에 맞도록 적절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거친 언어가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는 편집상의 목적 없이 사용될 때이며, 그리고 다음의 경우도 포함된다.

- 성적 욕설
-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차별적인 말
- 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혹은 성적체성(sexuality)에 관한 욕설
-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경멸적인 말
- 성스러운 이름이나 종교적 단어를 부주의하게 또는 경멸적으로 그리고 특히 다른 거친 언어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

4.21 프로그램 감수책임자와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 제작자는 거친 언어, 특히 매우 거친 언어(strongest language)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전에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숙고하고 적절한 상의

인물 묘사

4.38 우리는 BBC 서비스 내에서 영국 사람과 영국 문화의 모든 것을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에 따라서 영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단점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영속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신념, 인종 등에 대한 언급이 인물 묘사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BBC는 고정관념적인 가정을 피해야 하며, 편집상 정당화될 때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묘사할 수 있다.

4.39 시청자 기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코믹한 효과를 위해 스테레오타입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BBC는 부주의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스테레오타입에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음주, 흡연, 본드 흡입 및 불법 마약

4.40 BBC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와 행동을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이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특히 어린이 사이에 장려할 수 있는 위험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4.41 불법 마약의 사용, 약물 남용, 흡연, 본드 흡입 및 음주 과다는

- 강력한 편집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